2025학년도 2학기 문헌연구보고서



블록타임제 운영의 한계와 개선 방안 연구:
뇌과학적 학습 원리와 행정적 구조를 중심으로

이름	나*서
전공	신소재공학부 기계금속재료전공
학번	2024****

블록타임제 운영의 한계와 개선 방안 연구:
뇌과학적 학습 원리와 행정적 구조를 중심으로

2024**** 나*서

목차

Ⅰ. 서론
Ⅱ. 블록타임제의 의의 및 도입 배경
Ⅲ. 블록타임제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인식
 1. 블록타임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
 2. 블록타임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
Ⅳ. 블록타임제의 학습 효율성 저하 요인 및 구조적 한계 고찰
 1. 초두-최근 효과에 의한 주의력 한계 및 인지 부하
 2. 분산학습의 부재로 인한 장기 기억 감쇠
 3. 수업 결손의 증폭 및 학급 간 진도 격차
Ⅴ. 결론

Ⅰ. 서론

2009년 교육과정 개편을 기점으로 초·중·고 교육 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기존에 45분, 50분, 55분으로 고정되었던 수업 시간을 학교 재량에 따라 90분, 100분, 110분 단위로 통합하여 보다 자유로운 수업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고안된 개편 사항이지만, 장시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해당 운영 방식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청소년 교육과정 정책 중 하나인 블록타임제가 학생들의 수업 환경에 적절한 교육 방식인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해당 제도가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블록타임제가 도입된 본질적인 목적 및 인간의 주의 집중력의 한계, 해당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블록타임제는 기존 수업 시간의 2교시 분량의 수업을 연달아 진행하는 교육 방식을 말하며, 학생들의 집중도 향상과 교사들의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수업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블록타임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속에서 해당 제도가 오히려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블록타임제가 실제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반응, 뇌 과학 기반 시간에 따른 집중도 효율 고찰, 블록타임제 제도의 행정적 구조 한계 분석

등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블록타임제를 시행 중인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주의집중력과 기억 메커니즘에 관한 문헌 자료, 학사 운영 관련 법령 및 현황 자료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자료는 블록타임제의 실질적인 효과와 주체들의 의견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이를 위한 본고의 서술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블록타임제의 의의 및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블록타임제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인식을 알아본다. Ⅳ장에서는 인지과학 기반 학습 효율 및 시행 제도의 행정적 한계를 중심으로 블록타임제의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블록타임제의 의의 및 도입 배경

본 장에서는 블록타임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블록타임제가 가지는 의의 및 도입 배경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블록타임제는 기존의 고정된 약 50분의 수업 단위를 벗어나 100분 가량의 수업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유연한 시간표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블록타임제(block-time)'라는 명칭은 어원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영미권의 'block-scheduling' 또는 'block-schedule'이라는 명칭이 한글로 번역될 때 'block-time'이라고 번역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김영주, 2012:20). 이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김영주, 2012:10~11). 기존의 획일적으로 규정되었던 수업 시간이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탄력적인 수업 시간 재구성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수업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블록타임제는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 형태로부터 벗어나 학생들의 주도적인 토론 및 참여 수업 활성화와 예체능 수업에서의 사고력 확장 등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기존의 짧게 여러 번 분배된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예체능 수업에서의 작품의 완성도가 낮다는 점이 도입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정 당시의 기대와는 다르게 단순히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수업의 질적 향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Ⅲ. 블록타임제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인식

1. 블록타임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본 절에서는 블록타임제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당 제도가 교사의 업무 및 수업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블록타임제는 기존의 수업 시간을 두

배가량 통합 운영함에 따라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기존보다 가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실제로 블록타임제 수업을 운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하여 블록타임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교사의 인식이 확인되었다. 박선미·홍미영(2012:212~213)은 6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블록타임제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다음은 면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가) "아이들 수준을 고려하여 과제를 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이 많아졌어요. 동료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다른 학교로 전근가고 싶어 할 정도예요. 우리 학교가 (교과교실제)실험학교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힘들고, 학년 협의회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전공 교사 협의회도 시간이 맞지 않아 어렵고 항상 아이들과 맞대면 하는 일도 쉽지는 않은 일이예요."

-고양 S고등학교 사회 교사와의 면담 내용 중-

(나) "물론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위권은 잘 따라가고 블록타임제를 효과적으로 여기지만 중간은 힘들어 하고 하위권은 잡니다. 수준이 낮아지면 블록타임이 불리합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사회가 선택과목이라 수준별 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곤란합니다."

-용인 D고등학교 사회 교사와의 면담 내용 중-

(가) 면담 내용에 의하면 교사들은 수업 준비 및 실행에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수업 외 개인 업무 및 회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보인다. 또한 (나) 면담 내용은 교사 개인의 부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 진행에 따른 편차 문제를 심화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집중도가 높고 배경 지식이 풍부한 학생들은 장시간의 수업에서도 학습 몰입을 유지하는 반면, 하위권 학생들은 통합된 수업 시간 동안 가중되는 학습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상향 평준화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 결손 누적으로 인한 학력 양극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

2. 블록타임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

본 절에서는 수업의 가장 적극적 주체로 볼 수 있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블록타임제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박미소(2019. 9. 17.) 스쿨리포터에 따르면, 블록타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기 신한고등학교

의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블록타임제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약 64%에 달한 반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약 16%에 그쳤다. 이 조사 결과는 블록타임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64%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신봉규 학생은 "수업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길다보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잠을 못 자거나 하면 이제 조는 경우도 있고 수업시간이 길어서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라고 답하며 장시간의 연속 수업이 학생들의 주의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변예원 학생은 "학생도 학생 나름대로 지치긴 하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 역시 90분 동안 말을 한다는 게 힘드시기 때문에 지치는 게 학생들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업할 때 흥미도도 떨어지고..."라고 언급하며, 장시간 수업 진행으로 인한 교사의 피로 누적이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하였다. 조진일(2009:56)에 의하면 학생들이 블록타임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수업의 진도가 너무 빨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Ⅳ. 블록타임제의 학습 효율성 저하 요인 및 구조적 한계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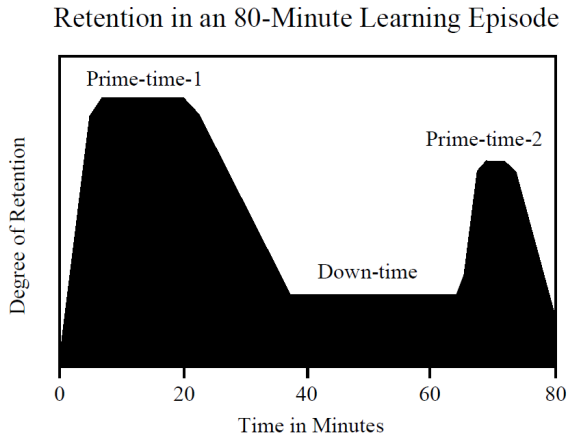
1. 초두-최근 효과에 의한 주의력 한계와 인지 부하

본 절에서는 주의집중 가능 시간과 수업 시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블록타임제의 학습 효율성 저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의집중력은 '주의력'과 '집중력'의 합성어이다. 이는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나 중요한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인 주의력과 그 주의를 다른 정보나 자극으로 돌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능력인 집중력의 의미를 종합한 개념으로, 주위의 자극에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은 채 특정 목표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된다(최정윤, 2019:4). 주의집중은 학습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한다(박주성·양일호, 2025:2). 따라서 학습 시간 대비 주의집중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학습 효율 제고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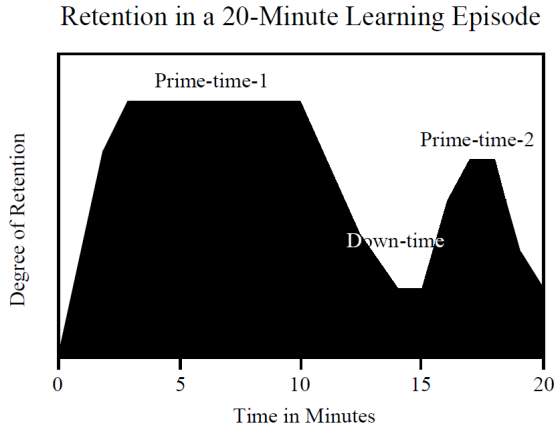
인간의 주의집중력은 시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주의집중 요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집중력이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학습 효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주의집중력의 수준은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비율, 즉 기억률과 정비례하는 특성을 보인다. 아래 자료(<그림 1>, <그림2>)는 수업 시간(집중 시간)에 따른 기억률을 도식화한 자료[1]이다.

---

[1] 「The Primacy/Recency Effect」, dataworks Educational Research, https://dataworks-ed.com/blog/2014/08/the-primacyrecency-effect/(2025.12. 9.).



<그림1> 80분 수업에서의 기억률-시간 그래프



<그림2> 20분 수업에서의 기억률-시간 그래프

초두-최근 효과(primacy-recency effect)란 기억률(degree of retention)에 있어서 수업 초반에 제시된 자료 및 수업 후반에 제시된 자료에 대한 기억률이 수업 중반에 제시된 자료에 대한 기억률보다 더 높은 경향을 말하며(이찬승, 2025.5.13.), 이는 심리학에서 계열 위치 효과(serial-position effect)[2]라고도 불린다. 위 자료를 보면 시간에 따른 기억률이 U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그래프는 기억률 변화에 따라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뉜다. Prime-time-1은 수업의 가장 처음 부분을 나타내며,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으므로 학습 효율과 기억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그래프 기울기가 0인 Down-time은 초반의 집중력이 급

[2] 「서열 위치 효과」,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7%B4_%EC%9C%84%EC%B9%98_%ED%9A%A8%EA%B3%BC(2025.12. 9).

격하게 떨어져 학습 효율이 저조한 구간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률이 현저히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주의집중력이 시간 경과에 따른 인지적 피로도로 인해 주의력이 분산되었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긴 수업 시간이 실질적인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보여준다. Prime-time-2는 수업 종료 임박에 대한 인지로 인한 주의력 회복으로 기억률이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지만 초기에 비해서는 낮다.

블록타임제가 수업 효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림1>과 <그림2>를 비교함으로써 고찰해볼 수 있다. 20분 수업의 Down-time 구간은 약 2분에 불과하지만 80분 수업의 Down-time 구간은 35분부터 65분까지 약 30분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효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비교할 수 있다.

$$수업\ 효율\,(\%) = \frac{전체\ 수업\ 시간\ (분) - Down-time\ 구간\ (분)}{전체\ 수업\ 시간\ (분)}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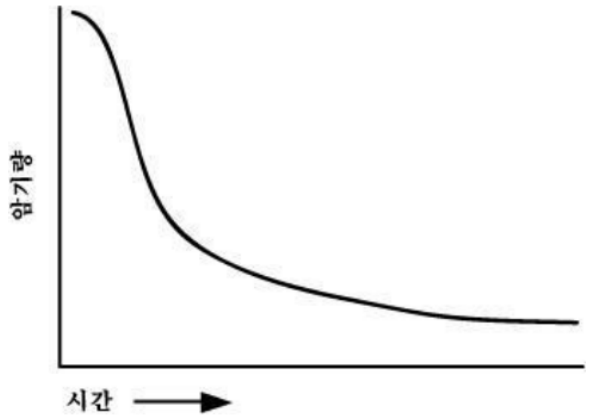
위 식을 적용하면, 20분 수업의 효율은 무려 90%에 달하는 반면 80분 수업은 약 62.5%에 불과하다. 수업 시간에 따른 기억률을 기반으로 전체 수업 시간을 고찰하였을 때 쉬는 시간 없이 약 100분 분량의 수업을 연달아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 가능하다.

2. 분산학습의 부재로 인한 장기 기억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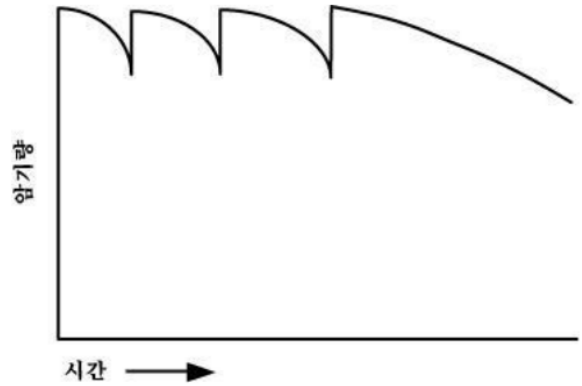
블록 타임제는 단기적인 수업 효율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억력도 저하시킨다. 본 절에서는 블록타임제가 분산 학습의 부재로 인한 장기 기억력의 저해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내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학습은 학습 시간과 학습 간격에 따라 분산 학습, 집중 학습으로 나뉜다. Dunlosky et al.에 의하면 분산 학습이란 학습을 여러 번에 나누어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꺼번에 몰아서 학습하는 집중 학습보다 장기 기억 면에서 더 높은 효율을 가진다(고성근, 2018:10에서 재인용). 반면 집중 학습이란 장시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블록타임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두 학습의 효율성은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과 간격 효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혹은 에빙하우스 망각 이론)이란 시간 대비 기억의 유지 비율의 관계를 기반으로 인간의 기억 망각 과정을 묘사한 곡선을 말하며, 초기에는 망각이 빠르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각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특징이 있다(천루이, 2025:10~11). 다음 <그림3>과 <그림4>는 Schmitt와 Schmitt가 제시한 분산 학습의 적용 여부에 따른 망각 곡선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문수현, 2024:14~15에서 재인용).



<그림3> 분산 학습이 없을 때 망각 패턴 그래프



<그림4> 분산 학습이 있을 때 망각 패턴 그래프

그래프의 x축은 학습 후 시간의 흐름을, y축은 학습 후 기억률을 나타내며, <그림3>에서 시간에 따른 망각으로 인해 기억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망각 현상은 분산 학습을 통해 줄일 수 있다. <그림4>에서 볼 수 있듯이 Schmitt와 Schmitt는 시간 간격을 둔 분산 학습을 통해 초기 망각이 가장 심할 때 학습을 진행하여 장기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문수현, 2024:15에서 재인용).

위에서 다룬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과 Schmitt와 Schmitt의 분산 학습에 의한 장기 기억 효율 증진에 관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블록타임제는 이와 상충하는 운영 방식이다. 블록타임제는 기존의 분산된 수업 시수를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물리적 학습 시간을 길게 늘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각 수업 간에 학습 공백기가 길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4일간 1교시씩 총 4교시 수업이던 수업에 블록타임제가 적용되면 2일간 각 2교시의 수업으로 편성된다. 이 경우 다음 수업이 3~4일 뒤에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산 학습이 어려워 학생들의 기억은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에 따라 급격히 소실되며, 교사는 지난 시간 수업의 망각으로 인한 학생들의 기억

상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블록 타임제는 불균일한 수업 주기 및 넓은 수업 간격으로 인한 학습 효율 저하를 초래한다.

3. 수업 결손의 증폭 및 학급 간 진도 격차

본 절에서는 국가 휴무일 또는 학교 재량 휴무일에 의한 수업 결손의 증폭과 그로 인한 학급 간 진도 격차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정 학교에서 시행 중인 블록타임제는 단순한 물리적 시간의 통합이 학생들의 학습 효율 및 집중도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형식적 한계를 지닐 뿐만 아니라, 학사 일정의 변수에 취약하여 학급 간 심각한 진도 격차를 유발하는 구조적 맹점을 안고 있다.

최근 교육 현장의 학사 운영 트렌드가 2월 등교를 생략하고 1월 중순까지 학기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 학기의 호흡이 길어지고 그만큼 다양한 휴무 변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다. 문제는 약 90~100분 단위로 운영되는 블록타임제가 이러한 긴 호흡의 일정 속에서 발생하는 수업 결손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50분 내외의 수업 체제에서는 하루의 휴일이 1교시의 수업 분량에 그치지만, 2시간씩 연속 수업을 전제로 하는 블록타임제를 적용하게 되면 한 번의 공휴일이 곧 2차시 분량의 수업 결손으로 이어진다.

만약 학교 휴무일이 평일에 고르게 분산된다는 전제가 부여된다면 학급 간 진도 격차에 대한 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정 휴무일 지정 체제에 의하여 대부분의 휴무일이 월요일과 금요일에 밀집된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3]에 따르면,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4]에 의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재량 휴업일에는 주로 개교기념일, 샌드위치 데이 등이 포함된다. 샌드위치 데이는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주중 공휴일이 화요일 혹은 목요일과 연계된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경향을 갖는다.

이처럼 공휴일의 요일별 편중 성향으로 인해 특정 요일의 수업 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요일에 블록타임제가 적용될 경우 진도 지연 문제는 배가된다. 결론적으로, 대

---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A%B3%B5%EC%84%9C%EC%9D%98%20%EA%B3%B5%ED%9C%B4%EC%9D%B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2025.12.13.).

[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47%EC%A1%B0(2025.12.13.).

체공휴일 제도 및 재량 휴업일 관행과 블록타임제의 구조적 경직성이 결합하여 수업 결손을 증폭시키고, 이는 심각한 학급 간 진도 격차 문제로 직결된다.

Ⅴ. 결론

공휴일의 요일별 편중 성향으로 인해 특정 요일의 수업 시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요일에 블록타임제가 적용될 경우 진도 지연 문제는 배가된다. 결론적으로, 대체공휴일 제도 및 재량 휴업일 관행과 블록타임제의 구조적 한계가 결합하여 수업 결손을 증폭시키며 이는 학급 간 진도 격차 문제로 이어진다.

본 보고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도입된 블록타임제가 학습 효율성과 수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뇌 과학적 원리와 학교의 구조적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블록타임제는 학교의 수업 자율성을 확대하고 토론을 기반으로 한 심층 학습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구조적 한계와 인지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두-최근 효과와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이론을 기반으로 고찰하여 볼 때, 단순히 수업 시간을 2배로 늘린 학습 방식은 학생의 주의집중 유지 한계를 초과하여 학습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게다가 블록타임제는 긴 수업 간격으로 인해 분산 학습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장기 기억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학교 행정적 측면에서도 이 교육 방식은 특정 요일에 편중된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이라는 수업일 변화 요인에 취약하다. 이로 인해 학급 간 진도 격차를 유발하여 학생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족한 수업 시간을 보충하고 진도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 부담과 행정적 압박이 가중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시간의 학습이 반드시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교육 현장에서는 블록타임제의 획일적인 적용이나 무조건적인 폐지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교과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첫째,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이원화된 시간표 운영이 필요하다. 높은 집중력과 지속적인 반복 학습이 요구되는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의 이론 중심 교과는 분산 학습 효과가 높은 기존 단위 수업 체제를 유지하고, 긴 호흡의 실습이나 토론이 필수적인 예체능 및 탐구 교과에 한하여 블록타임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통합적 운영을 도입해야 한다. 이 경우 블록타임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면서 장시간 학습 및 분산 학습 부재로 인한 학습 효율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둘째, 학사 일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수업에 블록타임제를 적용하는 대신,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젝트 수업이 집중된 특정 요일(ex. 금요일 오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만 부분적으로 블록타임을 적용함으로써 법정 공휴일이나 휴업일로 인한 수업 결손 충격을 최소화하고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블록타임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학습 효율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학생의 인지적 리듬과 교육 현장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 제도 운용이 진정한 의미의 수업 효율 향상 및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성근(2018),「분산학습 개념을 적용한 수업일기 쓰기가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A%B3%B5%EC%84%9C%EC%9D%98%20%EA%B3%B5%ED%9C%B4%EC%9D%B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2025.12.13.).

김영주(2012),「중등 음악교과 블록타임제 활용에 대한 조사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수현(2024),「분산학습과 몰입학습이 초등학생의 영어 연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소(2019. 9. 17.),「<스쿨리포트> "50분 수업을 90분으로".. 블록타임제, 학생들의 생각은?」, EBS, https://v.daum.net/v/20190917141237189(2025.12.13.).

박선미·홍미영(2012),「블록타임제에 따른 수업 변화 : 고등학교 사회과·과학과 수업을 중심으로」,『교육과정연구』30권 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193~219쪽.

박주성·양일호(2025),「초등학생이 과학 수업 시간에 주의집중과 Mind Wandering 시간은?」,『초등과학교육』제44권 제1호,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225~235쪽.

이찬승(2025. 5.13.),「이찬승의 학습과학 특강(26)_주의력 시리즈(제3회): "주의는 금세 사라진다 – 집중력을 유지하는 수업 전략"」,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https://21erick.org/column/15496/(2025.12.10).

조진일(2009),「교과교실 개선이 교수-학습 활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조사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천루이(2024),「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이론에 기반한 디지털 교육 도구 활용 한국어 어휘 학습 방안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47%EC%A1%B0(2025.12.13.).

「The Primacy/Recency Effect」, dataworks Educational Research, https://dataworks-ed.com/blog/2014/08/the-primacyrecency-effect/(2025.12. 9.).